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자료집



사업소개

시각예술부문

- 10-19 01. 존재와 호흡 | 김세중
- 20-29 02. 안예환 9323 | 안예환
- 30-39 03. 추산: 잘 있어요 텍스트씨 | 이재이(줄라이)

공연예술부문 1단계 공연창작

- 42-49 01. 소원 성취 발원이라 | 청악
- 50-57 02. 소리꾼 | 13월
- 58-65 03. 버티고개 꽃게 도난 사건에 관한 보고서 | 극단 오아시스
- 66-69 심사총평

공연예술부문 2단계 신작초연

- 72-83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 극단 송곳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산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연예술단체의 창작·발표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우수 콘텐츠를 확보하고, 시각예술 작가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에 주력하며,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거주)의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신규 창작에 대하여 지원

- 시각예술분야 -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 가능
- 공연예술분야 - 전문공연예술단체만 가능

사업내용

1) 공연예술: 공연창작, 제작초연 단계별 지원

- 공연예술분야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한 전문공연예술단체만 신청 가능
- 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 가능(기존 작품 신청 불가)

1단계(공연창작): 작품개발

- 공연창작은 신작 창작단계 지원으로 대본, 음악, 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를 지원함
-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20분 내외의 낭독공연 또는 작품 시연을 하여야 함
- 선정 단체는 공동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하여야 함 (공연장은 재단에서 제공)

2단계(제작초연): 1단계 신작공연의 초연 지원

2) 시각예술: 작가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

지원분야 및 규모

-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시각예술
-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분야 지원금 배분은 지원신청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신청사업별 지원결정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1. 공연예술

- 작품개발(1단계): 최고 7,000천원
- 신작초연(2단계): 최고 15,000천원(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 *2단계 사업은 1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심사를 통해 2024년에 지원함 단, 공연단체에서 기획, 대관, 홍보 등 자체 추진

2. 시각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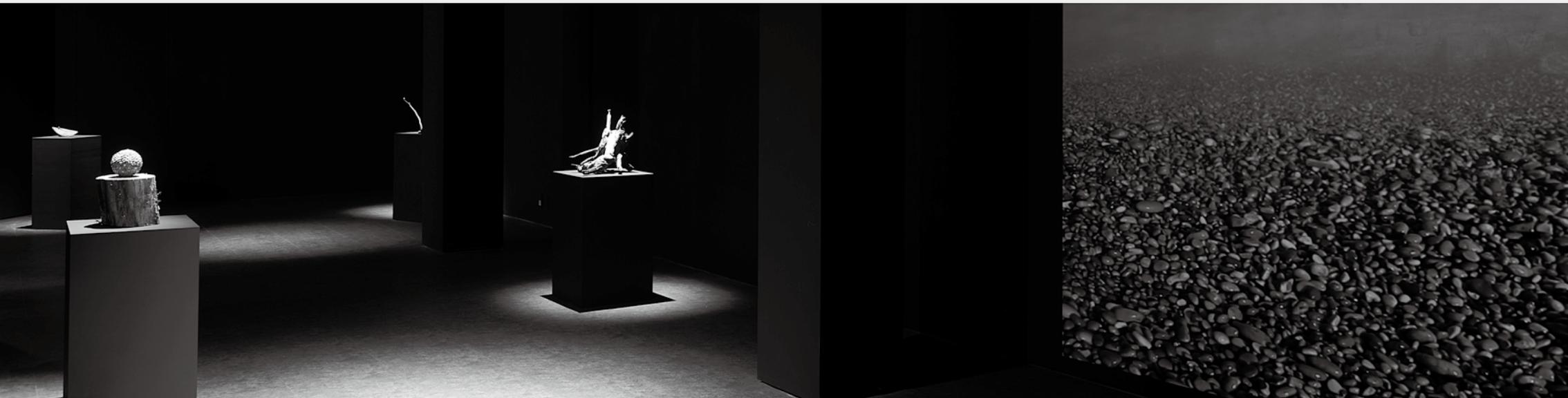
- 최고 10,000천원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예술 창작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공모 및 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사업포기 및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평가	정산보고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예술부문

사업개요

- 평가기간: 2023. 08. ~ 10.

- 평가대상: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예술 선정작가 3인

연번	사업명	선정작가	전시일정	장소
1	존재와 호흡	김세중	10. 12. - 11.21.	갤러리 BHAK, 안산비움예술창작소
2	안예환 9323	안예환	08. 16. - 08. 29.	화랑전시관 제1관
3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	이재이	10. 06. - 10. 19.	대안예술공간이포

현장평가

구분	평가위원	소속	선정작가
전문	신혜경	경기대학교 파인아트학부 교수	김세중
	강은주	미술평론가 및 미술사학자	안예환
심사위원	이정화	시각·다원 비평가	이재이

HISTORY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석사학위 취득)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졸업(박사학위 취득)

- 2022 '영원과 순간 사이' (THE Gallery, 경기도)
- 2022 '영원과 순간 사이' (김세중미술관, 서울)
- 2020 '영원과 순간 사이' (김세중미술관, 서울)
- 2020 정문규미술관 기획 초대개인전 '낮선 듯 낯설지 않은 꿈' (정문규미술관, 경기도)
- 2019 '영원과 순간 사이 (모네 아뜰리에, 프랑스 루앙)
- 2016 '자연, 꿈, 영원' (박수근미술관, 강원도 양구)
- 2013 '영원을 꿈꾸다' (박영덕 화랑, 서울)
- 2008 '영원을 꺼안다' (박영덕 화랑, 서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지도 교수님의 개인적인 사사를 받으며 극사실 회화를 주로 공부했다. 이후 박영덕 갤러리에서 인정을 받아 전속 작가로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내외에서 11회의 개인전과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박수근미술관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국내외 아트페어와 단체전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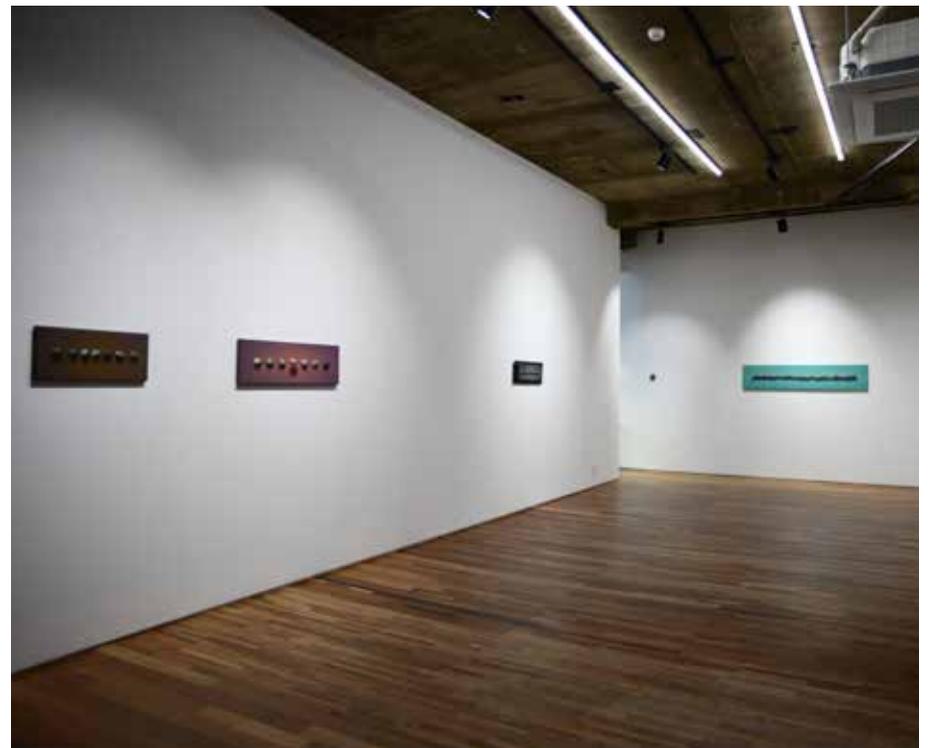
국방부, 한화그룹, (주)메디컬 그룹 베스티안, 천주교 서울대교구, 광주시립미술관, 단원미술관, 박수근미술관, 홍익대학교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호반문화재단 등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2H-EAA』 대상, 『제 23회 세계평화미술대전』 종합대상_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4 단원미술제』 안산선정작가, 『제 2회 가톨릭 미술 공모전』 우수상, 『2006단원미술대전』 특선, 『제 2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며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8년도에는 18대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 19대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의 초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상파 화가로 유명한 클로드 모네 아뜰리에(클로드 모네가 루앙 성당 연작을 그린 장소)가 있는 프랑스 루앙에서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존재와 호흡

김세중

01



영원한 생명(돌)을 통해 유한한 생(生)을 돌아보다

「프로젝트 지원동기

작업은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순히 외적인 모방만이 아닌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절대적이며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영원한 대상으로써 존재하는 자연(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재현이 아닌 예술가의 주관과 감성에 의해 지각된, 예술의지와 표현의지로 표현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이 아니라 대자연의 혜택 아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연의 미를 인식하고 직관적 경험과 상상적 유추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여 대상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해 가는 생명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돌(자연)을 통해 동양의 자연관과 인간의 삶을 연계하여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에 내재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접촉, 존재론적 사건의 회화적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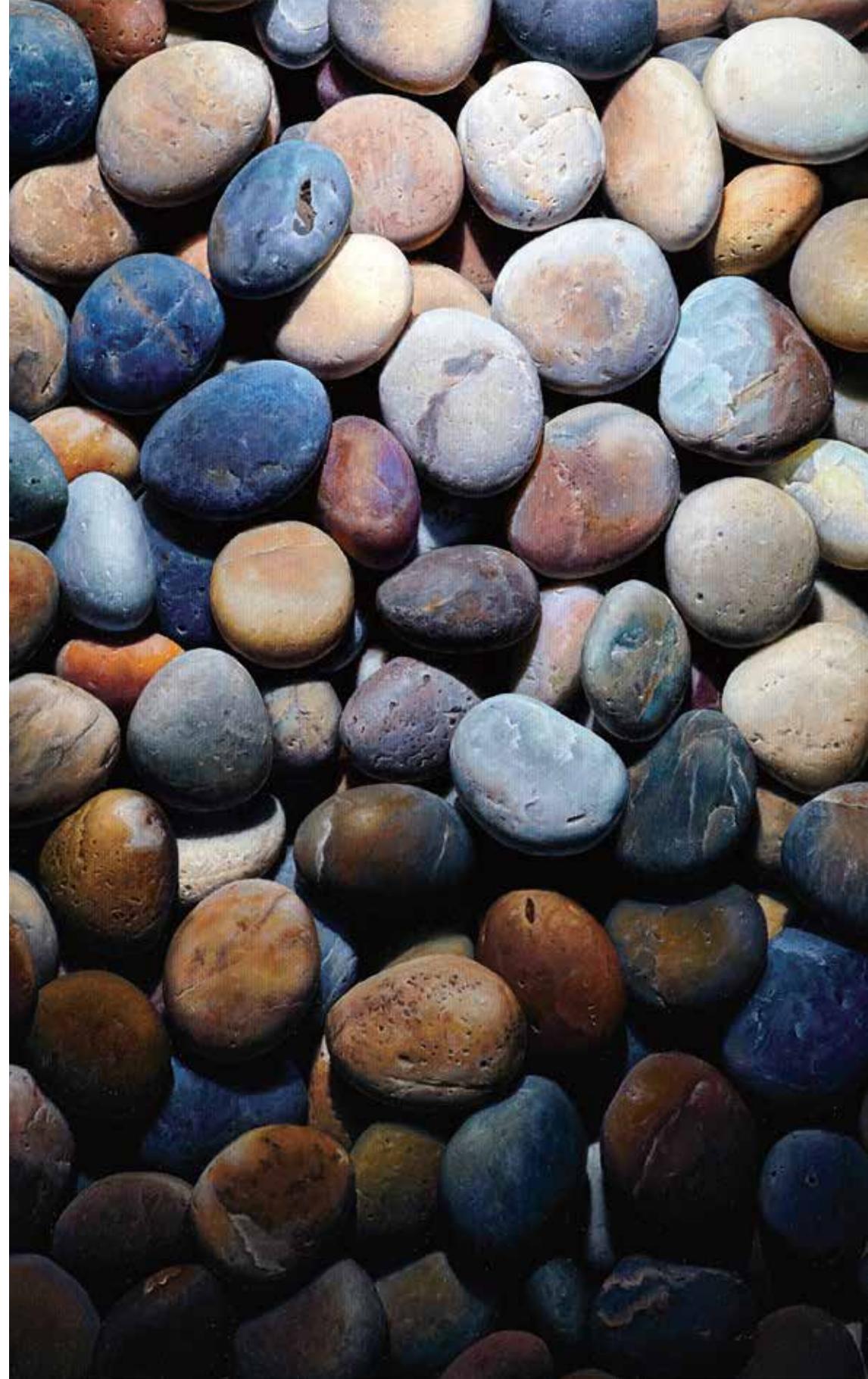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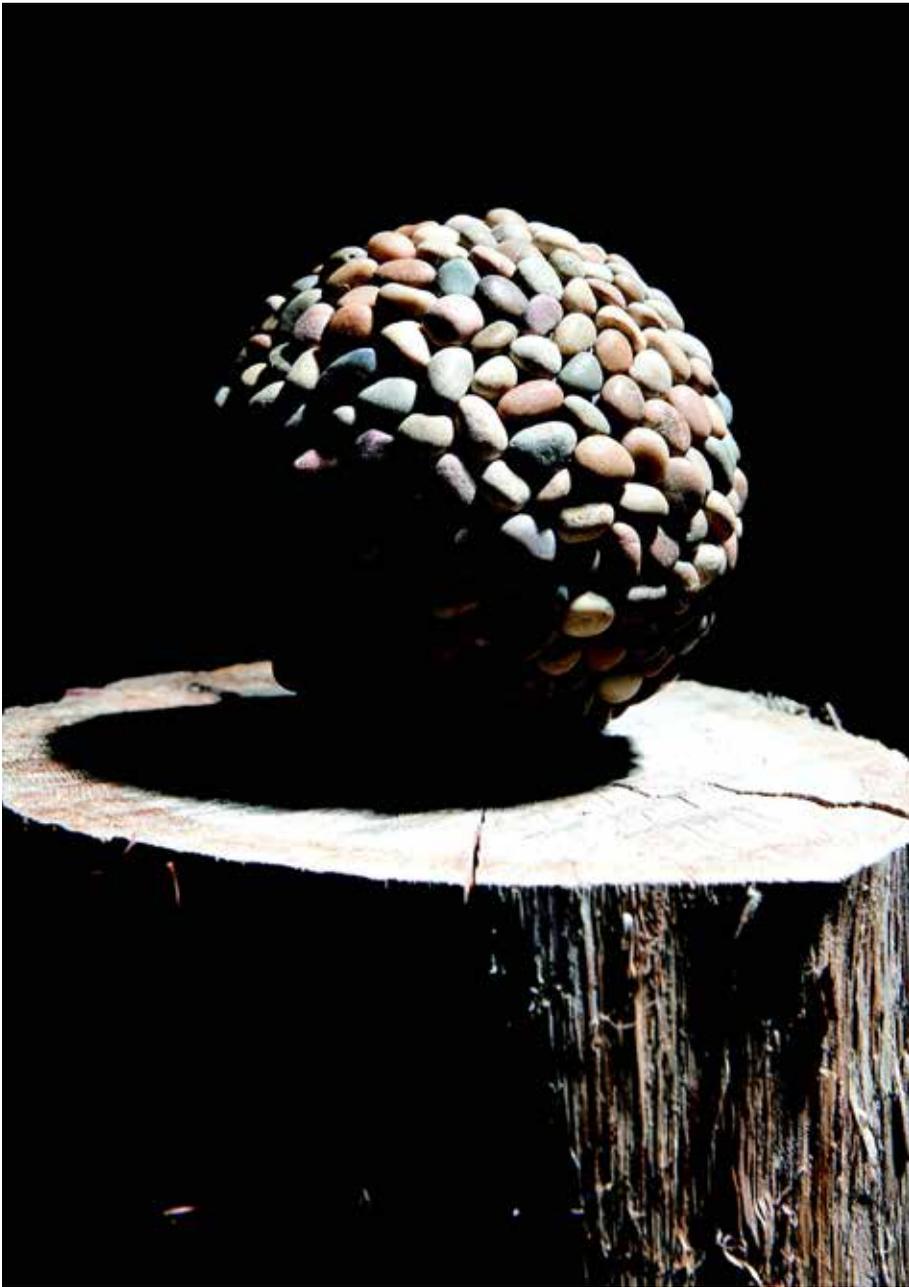
「프로젝트 소개

<존재와 호흡>은 시간과 공간, 문명과 자연, 정신성과 물질성, 그리고 신화와 현실, 우주의 공간성에 녹아 있는 생성·소멸·미지와 같은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요소들이 각각의 작품마다 만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서 가장 가치적인 건 '접촉'이다. '사물과 나의 접촉, 사물과 사물의 접촉, 세계와 나의 접촉'이라는 존재론적 사건을 회화적으로 구현한 것'이면서 외적 모방이 아닌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대상에 대한 감각적·지각적·감성적 접촉이 키워드인 셈이다.

극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회화는 대중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 수단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망막 뒤에 감춰진 본질과 만날 수 있다. '실재라는 명징함의 가능성'이란 문을 지나면 인간 삶과 동일선상에 놓인 자연과 조우할 수 있다. 그것들과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초월적 경험이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은 다시 환영(幻影)을 거세한, 비로소 영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 존재 본질의 모습이다.

화폭 너머에 자리한 존재 본질을 응립시키는 시간의 개념과 함께 인간 삶과 무관하지 않은 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주제를 '존재와 호흡'이라 정했다.



김세중, 시간을 머금은 돌멩이와 자기 반영성

「현장비평

미술비평 신혜경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일환인 김세중의 <존재와 호흡(2023.10.12.~11.11, 갤러리 BHAK)>전은 이전부터 해온 그의 작업 세계와 유사하게 실제적인 것의 재현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지각을 그려낸다. 지하 1층과 1층의 갤러리 내에 평면과 입체, 영상 작업 등 총 13점으로 구성된 작업은 장르(genre)상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 대부분이 현상 뒤의 어떤 실체나 본질에 대한 작가의 믿음이 숨겨져 있다. 특히 작가 자신의 주관성이 통일적 직관 형태로 산출되도록 하면서 경험과 지각을 객관화하는 작용이 눈에 띈다. 하늘과 바다, 조약돌 등의 자연풍광과 서양 고대 그리스·로마 조각상 그리고 오래된 기물들이 상호작용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는 과거의 작업과는 차이를 지닌다.

이번 사업에서 작가는 오롯이 ‘돌멩이’만으로 실존적 존재와 개인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전체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다. 대략 6호 내외의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와 재활용된 기물의 표면에는 오로지 원과 수평 형태로만 구성된 ‘돌멩이’ 작업이 주를 이룬다.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이 ‘돌멩이’ 모티브들은 일견 실제의 ‘돌멩이’ 그 자체와도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인가, 혹은 가상일까? 또는 실제의 모방인가 혹은 현상의 모방인가? 이런 의구심은 전시를 보는 내내 적지 않게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특히 현대미술의 선구자인 마르셀 뒤샹(M. Duchamp)의 <샘(1917)> 이래 불거져 나온 전통적 예술의 방식과 현상에 대한 부정의 담론을 소환하기 충분하다. 전통적 예술의 관념은 전적으로 제한된 시각과 고정된 현상으로 세상과 사물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의 미적 형식은 유사성의 완결된 작품을 생산한다. 반면 현대 미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물의 객관적 닮음과 유사성의 형식 원리를 취하는 것은 자칫 창조성 없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춰 그려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작가의 ‘돌멩이’ 작업은 자칫 부정적이거나 진부한 시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결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작가의 주관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굴절될 수 있다.

작가의 작업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공간과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지각된 자료, 주로 자연풍광에서 세월을 머금은 ‘돌멩이’들을 수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유럽인들의 ‘분더카머(wunderkammer: 수집의 방)’를 연상시킨다. 수집은 문자적 의미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별적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의 그림을 반영해주는 것과도 같다. 그렇기에 수집가에 의해서 구성된 사물들은 그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재생된 질서 속에서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깊이를 탐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를 자신의 시선에 담아가는 과정이며 자신을 자각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가는 자신의 여러 관심 대상과 정신적, 감각적 대상을 천천히 한데 불러 모은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촬영과 인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구성과 편집을 시도하고, 빛과 단색조의 무한한 가능성이 깃든 공간에 하나의 통합된 형상을 만들고 배열한다. 이렇게 재창조된 ‘돌멩이’ 작업은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를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정신적 상징과 은유에 기초한 자기 반영적인 세계를 펼친다.

그의 작업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크고 작은 형태의 자기 반영성의 돌멩이는 무엇보다 작품의 중심적인 소재이자 의미의 저장소로 작용한다. 작가에 의하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돌멩이조차도 ‘나’와 같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실존적 존재다. ‘돌멩이’는 작가 자신과 동일시되는 감정입의 대상이자 내적 의식을 반영하는 상징적 표상의 매개체다. 작가는 우연히 들른 유럽의 어느 한 해변이나 인천 백령도의 공돌해안 등에서 본 돌멩이를 자연의 거센 숨결을 넘어 어디까지나 그것을 하나의 현실로,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지각한다. 결국 손수 채취하고 수집한 돌멩이는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지각에 의한 자의식의 핵심적인 지배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작업의 본질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과 관련한 그 모든 것 외에 작가가 쉽사리 말하고 볼 수 없는 것의 비가시적인 것, 걸려된 것, 반성적인 것들에 관해 말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작가가 자연을 향하여 들고 있는 거울을 향하여 또 다른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의 재현과 내적 정신의 융합의 강조는 무엇보다 자기 반영성을 잘 나타낸다.

자기 반영성의 작업은 이전 작품들에서 발견되었던 초현실주의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의 교환과 대체, 시각적 이미지의 트릭과 조작 등을 하지 않아도, 또 표현의 왜곡과 감정의 대담성을 노출하지 않고서도 지각의 애매모호함을 겨냥한 환상적 효과를 자아낸다. 또한 작품 그 자체가 스스로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작가의 작업은 물질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의 상호작용의 잠재적 가능성, 즉 실재에 자기 반영성을 더하여 추상적 본질에 관계하는 사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의적인 메시지 속에서 불확정적인 의미의 공간을 형성한다. 현대예술의 일반적인 특징이 상상력, 우연성, 불확정성, 무한성, 암시성, 진행형과 같은 작품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멩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는 사물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 주체와 타자의 연결이나 조응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내적 긴장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발견들로 가득 찬 상호교환 과정으로 관람객을 인도한다. 작가는 작품의 본질로서 이러한 불가능성의 체험을 창작 과정의 요소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관객과의 내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유발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전시장의 방문객들은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돌멩이’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은 본질적으로 작가가 창조한 시공간 내에서 자기 반영적 세계와 관객과의 상호침투를 요청한다. 또한 작가는 상호적 교감에서 벌어지는 내적 관계의 시도를 중요한 의사소통의 요소로 받아들인다. 작가 자신의 정신과 사고에서 다른 이의 사고로 감정이 전이되게 하여 작품-관람자 사이의 내적인 공명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적 차이에 오는 미묘한 반향 혹은 정서적 반응에 따라 다양한 은유적 의미의 생산과 해석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관객 자신이 스스로 제 경험처럼 판단하고 다양하게 견지하도록 상상력의 깊이를 통로를 열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일환인 김세중의 전시는 무엇보다 작가 개인의 심적, 정신적 현상의 본질적인 성격으로서 자기 반영성의 작업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이런 작업은 관람자의 반응으로부터 작품을 자유재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내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작가의 정신이 투사하고 있는 세계와 관람객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무한대로 하는 ‘열린 예술작품’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미술이 일반대중과 특히 안산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이라는 한정된 문화예술 테두리에서 벗어나 메이저 화랑에서의 전시효과로 인해 안산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위용과 안산 지역작가의 역량 홍보에 훌륭한 기여가 될 것이다. 다만 질 좋은 전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관련하여 9월 제작 예정이었던 리플렛이 전시 후로 진행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HISTORY

동덕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 졸업

- 2021 제 7회 안산시 미술인상 수상작가 초대전, 단원미술관 제1관 특별실
- 2021 지금 바로 여기, 안예환 초대전, 안산 더 갤러리
- 2019 안예환의 드로잉과 도자 회화전, 안산문화원전시실
- 2017 안예환 회화 초대전, 스페이스D
- 2015 안예환의 “비움과 채움”전 자인제노 초대전 (서울), 대안공간 봄 초대전(수원)



안예환 9323

안예환

02

안예환 작가는 안산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1993년 ‘안산미술 열림전’이라는 전시를 시작으로 단원작가회 창단 멤버로 안산미협을 발족하고 2023년 현재까지 안산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 단원미술제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등을 역임했으며, 여권통문 발표 120주년 국립 여성사 박물관 건립촉구 한국여성 미술인 120인전 추진위원으로 ‘여성의 날’ 제정에 기여하면서 한국 여성의 권익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펼쳐왔다.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소명을 갖고 한국화의 정체성을 찾는 실험 작업들을 하였으며, 한국화의 정체성을 재료, 기법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정신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보편성을 가진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1994년 인데코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서울, 안산, 인천, 수원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일본, 독일, 중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등 국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안산에서의 30년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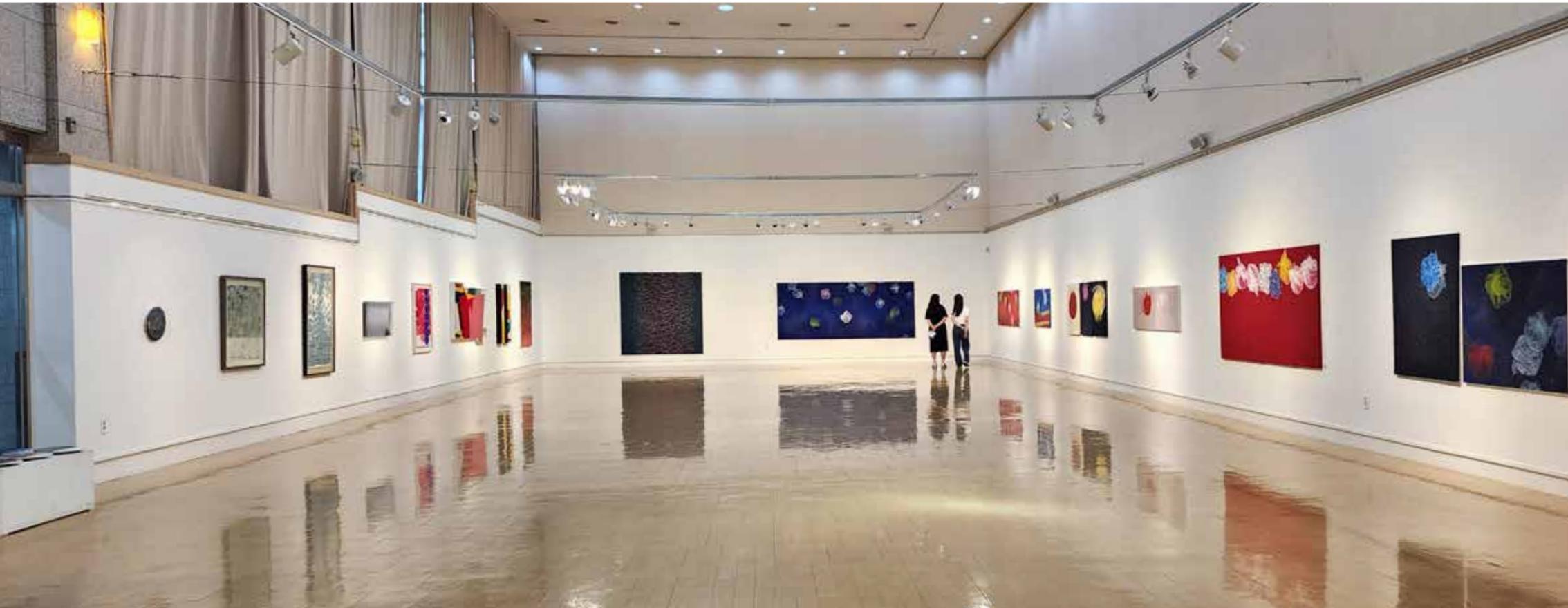
거대한 우주 속 텅 빈 보자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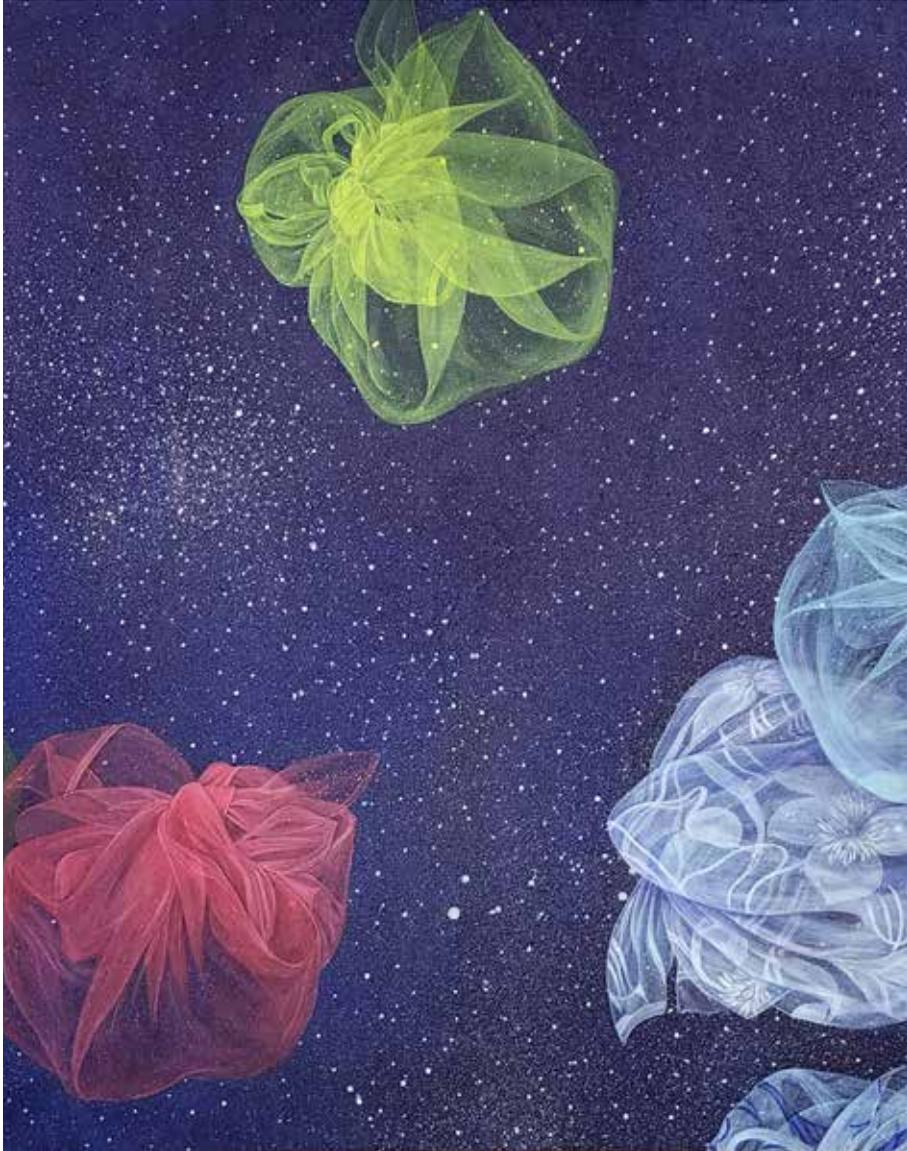
「프로젝트 지원동기

199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안산에서 30여 년간 활동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세계관을 다시 조망하고 작품을 데이터화 시켜서 아카이빙 하는 계기를 삼고자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입니다. 1980년대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망라된 이번 전시는 안산미술과 함께 성장해 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안예환 9323>은 버드나무, 제기, 달과 우주, 선인장, 보자기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가는 그동안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화두로 부단히 그리고 또 그려왔다. 이번에 공개된 신작에는 텅 빈 보자기가 우주공간에 그려져 있다. 우주라는 공간 속에 가볍게 존재하는 보자기의 형상을 통해 급변하는 거대한 현대 문명의 물결 속 주인공 혹은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아(我)와 피아(彼我)의 화해를 위한 그리기 30년

「현장비평

미술비평 강은주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 안예환은 어린 시절 안산에 대한 추억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의 행정구역이 생기기 전에 안산이 시흥을 포함한 꽤나 넓은 경기도 마을이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일찍이 세도에서 벗어난 시골 양반 중 하나였던 조부에 대한 기억과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안예환이 홀로 걷던 수양버들 길에 관한 추억이 어린 곳, 가부장적인 집안 환경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이를 극복하고자 색과 조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곳, 10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곳도, 가족의 상실을 경험한 후 다시 삶을 다잡은 곳 역시 이곳 안산임을, 작가는 자신의 작업세계의 시작과 현재가 고향 안산에 있음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안산문화재단의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마련되었다. 안예환의 전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의 우수 중견작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안산에서 나고 자라 안산을 창작의 기반으로 삼아 온 안예환은 본 사업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사례였고, 작가도 이에 지역작가라는 색을 부러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심정을 알 수 있다.

안예환은 1970년대 말 동덕여대 회화과에 입학하며 예술의 여정을 시작했다. 한국화를 전공했으나 전통에 침착하지 않고 동양과 서양, 구상과 추상,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그의 자유분방한 조형 방식은 여전히 수구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당시 한국화단의 분위기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다. 안예환이 학부를 마친 1980년대 초 한국 미술계는 실험미술이 성행하고 단색화의 추상과 민중미술의 구상이 공존하며 해방 후 가장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학연, 성차, 소속이 여전히 강조되던 시기였던 만큼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를 환영할 리 없었다. 안예환은 대학 졸업 후 교직을 선택했고, 10년을 돌아서 비로소 전업으로 나아갔는데, 당시 작가의 절박한 심정을 “그림이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노트의 글귀로 짐작할 만하다. 작가는 본격적인 전업의 출발을 1993년경으로 인식하고 올해로 30년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안예환 9323>인 이유이다.

지난 30년 간 작가는 조형적 태도에 있어서는 여성주의를, 조형적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화와 서양화의 방식을 아우르며 사물과 색채에 집중해 왔다. 안예환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채와 아교, 아크릴을 이용해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제기, 선인장, 보자기와 같은 사물들이다. 이들은 상징이며 동시에 작가의 기억 속에 실재하는 것으로, 작가가 자신(아)과 세계(피아)의 대립을 직시하고 이를 중재 내지 화해시키기 위한 매개로 선택한 것이다. 흥겹게 흐트러진 제기가 과거 조부를 중심으로 한 난공불락의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다면, 서슬 오른 가시가 잔뜩 뻗친 선인장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러한 선인장을 화려한 보자기로 감싼 것을 가시에 찢리고 상처가 나 아프더라도 이를 보듬고, 내일로 가고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

최근 안예환의 보자기는 선인장을 덜어내고 속이 빈 반투명한 형태로 공간을 떠돈다. 무한 공간 속의 빈 보자기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낱 작고 연약한 먼지처럼 존재감이 없이 떠도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는 작가의 자조어린 질문을 담는다. 30년 간 희망과 좌절을 거듭해 온 작가의 인생론의 형상이라 할 것이다. 안예환의 보자기가 펼쳐진 것이 아닌 공공 싸매진 보따리의 형태인 것은 이것이 작가가 이제껏 홀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뚝뚝뚝 걸어가 화가의 여정에 필수적인 그녀만의 무기요, 생존양식이요, 안식처임을 드러낸다. 이는 모든 인간이 척박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싸우는 최소한의 자기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이르니 비로소 안예환이 찾은 아와 피아의 화해가 무엇인지 이해할 듯하다.

필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안예환이 안산작가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녀가 스스로 피아와의 접점을 마련한 만큼 과거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그녀만의 헤테로토피아에 도달하길 바란다. 화가 안예환의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은 분명 즐거울 것이다.

HISTORY

고려대학교 영문학 학사 졸업
연세대학교 비교문학 박사 이수

- 2022 I'm an Open Book, 여반커뮤니티
- 2022 책의 끝 : 도형의 여행,
안산문화예술의전당 Gallery A
- 2018 논오브젝티브 파라노이아, 전시공간,
서울문화재단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 이재이(줄라이)

03

이재이(줄라이)는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전공했다. <연세대학원신문>, <YGSJ>, 생활인문잡지<WAY> 편집장으로 활동했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아트북 작가가 되었다. '이디스 현'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소설 <파라노이드 3부작: '모안의 숲', '화이트잭', '모빌'을 썼고(2018), 이를 시각예술로 재해석한 전시 <논오브젝티브 파라노이아>(2019)에 설치 작가로 참여하면서 시각예술 영역에 발을 들였다.

개인전 <책의 끝: 도형의 여행>, <I'm An Open Book>(2022)을 열었고, 이때부터 패브릭 콜라주 기법을 발전시켰다. 여성 아티스트 듀오 그룹 '라이바라 시스터즈'로 활동하면서 전시 <당신의 13월: Still Waiting>과 인문예술 워크숍 <어디에 있나요?>(2023)를 진행했다.

현재 안산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가훈을 지봉 삼아 남편 피터, 34개월 된 아기 허니킴과 함께 살고 있다. 육아와 집안일, 작업을 동시에 굴리느라 거의 매일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러 아줌마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극복하며 어떻게든 행복한 라이프를 지켜가고 있다.



텍스트와 의미를 비워낸 공간에 다시 '받아쓰기'

「프로젝트 지원동기

비교문학 박사과정 재학 중에 '테레사 학경 차'라는 흥미로운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 문학 예술작품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이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는 『딕테』를 읽고, 그에 관한 소논문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에 나타난 받아쓰기의 양상』(2013, 『유럽사회문화』 제10호 참고)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인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딕테』에 활용된 '받아쓰기'라는 소재가 예술 영역 전반을 향해 던지는 중요한 화두처럼 보였습니다.

시각예술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인문학의 언어와 연구자의 자세가, 물성을 가진 재료들을 만지고 감각하며 배열하는 콜라주 작가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루는 매체와 표현 방식, 확정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시각예술작가로서 그간의 작업이 텍스트와 의미를 비워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비워낸 공간에 기존의 예술 텍스트를 나의 방식으로 다시 '받아쓰기' 하고자 합니다.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는 작품의 감동을 논리적으로 분쇄하는 분석 언어와 그것에 향응해 감각적으로 분출하는 표현 언어, 같고도 다른 두 예술 언어의 즐거운 교차점을 찾아내는, 더불어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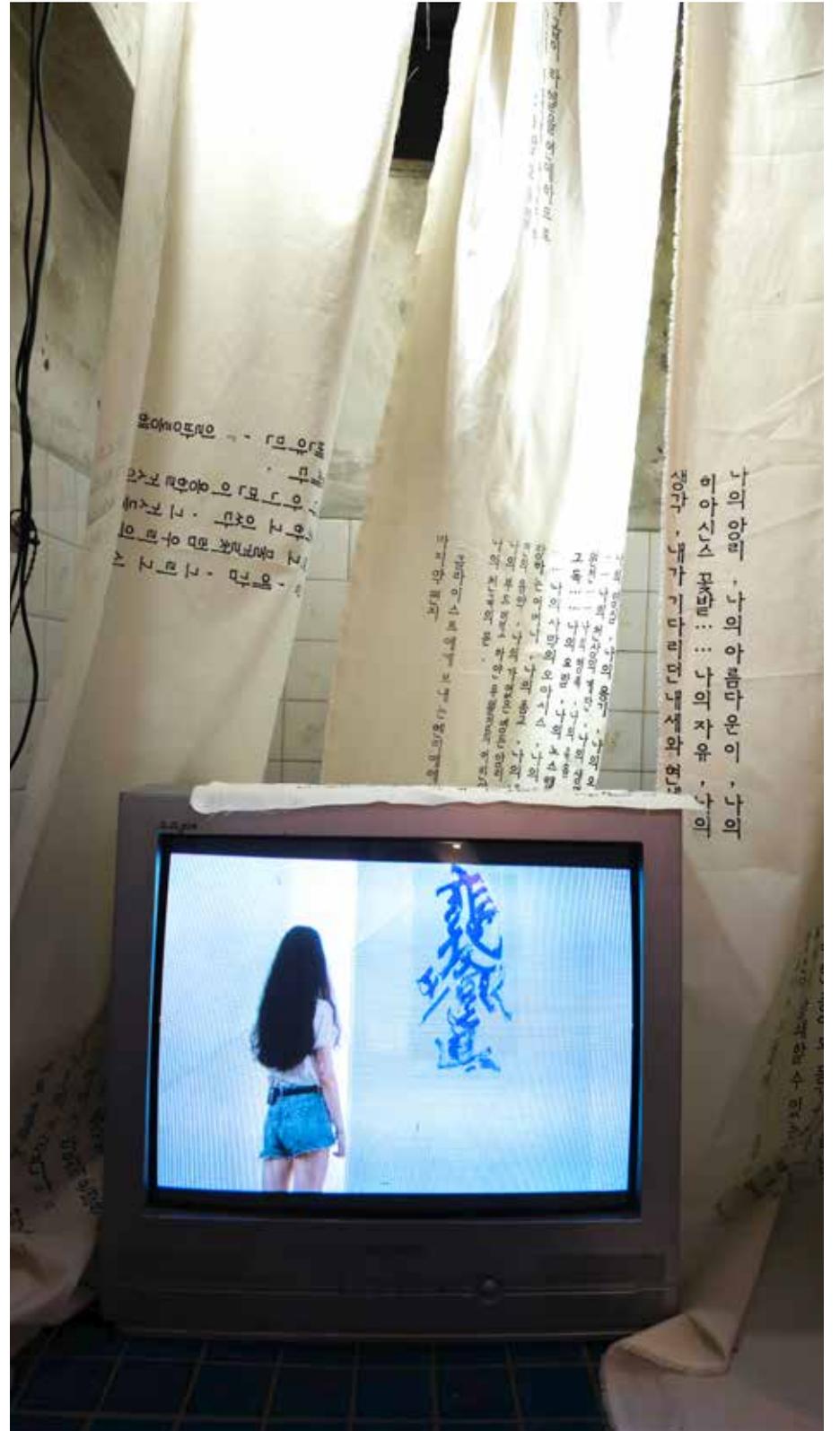
실패하며 텍스트와 이별하는 법

「프로젝트 소개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는 '받아쓰기'에 관한 전시다. 작가는 인문학 텍스트 8개를 발췌하고, 문자로 이루어진 그 원본 텍스트들을 시각예술 언어로 받아쓰는 시도를 한다. 그런데 이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받아쓰기에 성공한다면 타인의 예술만 드러날 것이므로. 받아쓰기 수행자는 실수하고 실패한 지점에서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므로.

따라서 줄라이의 받아쓰기는 처음부터 실패를 목표로 한다. 보다 창의적인 오류와 신박한 오독을 겨냥하며, 작가 자신에게 한때 깊은 성찰과 감동을 주었던 그러나 이제는 멀어지고 싶은 텍스트들과 제발 잘 이별하기 위해. 그러나 미련한 미련에 쿨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실패가 되고 만 소심한 인사말,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





안녕, 도래할 나의 텍스트씨

「현장비평

미술비평 이정화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는 이재이 작가가 (비교문학 연구자로서 공부하던 시절) 읽었던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라는 작품을 (시각예술 작가 줄라이의 시선으로) 새로이 '받아쓰기' 하는 전시다.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대안예술공간이포) 『딕테』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화자-받아쓰기 학습자는 일종의 책략으로서의 받아쓰기를 시도한다. 옮겨 적어서는 안 되는 것, 지시하고 명령하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옮겨 적는다. 받아쓰기의 명령에 충실한 필기사는 받아쓰기를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권위를 문제시하며 의도적으로 받아쓰기에 실패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재이 작가는 인문, 예술 텍스트에서 발췌한 여덟 개의 원본 텍스트를 '받아쓰기' 하는 과정에서 원본 텍스트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 변형한다. '받아쓰기' 실패의 과정은 대형 아코디언북의 파편으로 남아, 콜라주 과정의 결과물이 전시장 곳곳에 설치 및 전시된다. 이 과정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지금의 나를 나로 있게 한 과거의 몇몇 원본 텍스트들을 향한 응답이고, 나를 둘러싼 오늘의 존재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이자, 미지의 사람들 — 대형 아코디언북 설치물의 안과 밖을 몸으로 넘나들며 몸으로 직접 경험할 관객들 — 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작가는 왜 이러한 실패를 시각적 언어로 기록하려고 하는가. '텍스트씨'에게 안녕을 고하기 위해서다. 왜 안녕을 고하려고 하는가. 연구자로서 텍스트를 바라보던 나의 추상 언어가 이제는 손으로 감각하는 언어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안녕은 그저 끝을 고하는 인사가 아니라, 지평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우고 다시 긋고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덮고 덧붙이는 콜라주 아트북

이재이 작가는 <추신: 잘 있어요 텍스트씨>를 기획하면서 여덟 개의 받아쓰기 패널을 완성한 후 아코디언북 형태로 단단히 묶을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받아쓰기를 진행하는 동안 각각의 받아쓰기 패널에는 일종의 자유의지가 생긴다. 어느 순간부터 패널들이 마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것처럼 한데 묶이지 않고 제각기의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패널 5번은 공중에 매달리고, 패널 6번은 심장을 관통 당했고, 패널 7번은 조각 나고, 패널 8번은 받아쓰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아코디언북의 구심력은 낱장의 반항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작가의 받아쓰기는 실패한다. 전시장 곳곳에는 실패한 작가의 받아쓰기 파편들이 놓여 있다. 작가는 어떤 글을 받아쓰기하려고 했을까. 총 여덟 개의 원본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 모리스 고들리에의 『증여의 수수께끼』 일부, 버지니아 울프의 『울프 일기』 일부,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 일부,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미국의 송어 낚시』 일부,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일부, 클라이스트에게 보내는 헨리에테의 마지막 편지,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 보르헤스의 『아스테리온의 집』, 이번에는 『안티고네』 '받아쓰기'를 통해 실패의 흔적을 들여다본다. "안티고네의 오빠들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나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운명 그 자체를 통째로 원했다. 그녀의 욕망은 지극히 순수했으므로, 그 어떤 오염 물질도 용납할 수 없었다. 여기서 오염 물질은 말하자면 '삶'이다. 약혼자와 결혼하고, 오빠들의 시신을 자연에 맡기고, 법과 적당히 화해하며 하루하루 육신의 시간을 채워 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 이재이 작가의 '받아쓰기' 실패는 이러한 여러 편의 파편 글로 창작된다. 그가 말하는 실패는 원본을 지우고 긋고 덧붙여 새로 생겨난 도래한 텍스트(이름)다.

이디스 현, 이정옥, 이재이, 줄라이…… 모양과 틀을 여는 주술 같은 언어

대안예술공간이포에 설치한 이재이 작가의 전시는 초입부터 흥미롭다. 계단참 곳곳에 잘 있어요, 잘 있으라고요, 잘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있진 마요 등의 문구가 붙어 있고, 층층 계단 코너의 작은 공간에도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배사과 작가의 에세이극) 영상과 이재이 작가의 콜라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모두 감상하려면 시선을 한 곳에 두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선보인 조형 언어의 테마는 '다리(bridge)'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떠나고 싶지만 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시선이 엮힌다. 콜라주는 인생과 닮았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패의 자국이 선명히 남고, 뜯어낸 것들이 새로운 형상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도형은 서로에게 말을 걸며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작업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주로 천을 사용해서 콜라주 아트북을 제작하는데, 천이라는 부드러운 물성은 유년기 접한 원단의 촉감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에게 천은 만지고 싶고 피부에 닿고 싶은 편안한 소재이기에, 시각 작업 시 메인 소재가 된다. 종이, 천 등과 같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작업하는 그의 작업은 그래서 위태롭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다. 그의 작업이 다정한 듯 명징해 보이는 이유는, 부드러운 것으로 강하게 말하고 싶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안정적이고 싶고, 고요하지만 폭발하고 싶은 이재이 작가의 태도와 연관된 듯 싶다.

그는 이름이 여럿이다. 본명인 이정옥이라는 이름이 지닌 목직한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재이로 개명한 그는 아이를 낳고 키우거나 글을 쓸 때(『파라노이드 3부작』으로 작가는 『모양의 숲』, 『모빌』, 『화이트잭』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백개의 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는 이디스 현이라는 이름으로, 시각예술 작가로서 아트북을 제작할 때는 줄라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에게 이름은 미래에 놓여 있다. 명명하는 동시에 서서히 모양과 틀이 잡히며 자기 언어를 만들어 가는 주술 같은 이름들이 그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뮤즈가 된다. 이디스 현은 텍스트 언어를 '받아쓰기' 하며 마치 실을 자아 새로운 천을 직조하듯 텍스트의 씨줄과 날줄을 이어 가고, 줄라이는 그 텍스트 언어를 시각예술의 언어로 '받아쓰기' 하며 직조한 천을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 흘러지는 듯하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듯하다 새로이 쓰인 그의 텍스트는 그 래서인가, 도래할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그 이름이 부르고 싶다.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부문_1단계 공연창작

사업개요

- 쇼케이스 일정: 2023. 10. 21.(토) 10:00
- 쇼케이스 장소: 안산문화재단 별무리극장
- 공연단체: 3작품(단체별 공연 20분 이내+심의위원 10분 질의 응답)

연번	공연단체	공연명
1	청악	소원 성취 발원이라
2	13월	소리꾼
3	극단 오아시스	버티고개 꽃게 도난 사건에 관한 보고서

현장평가

구분	평가위원	소속
전문 심사위원	김일송	공연평론가 및 공연칼럼리스트 / 이안재 대표
	신동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미래전략실장시각, 다원 비평가
	송현민	음악평론가 및 음악칼럼리스트 / 월간 객석 편집장

안산의 젊은 국악팀 전통문화의 발전을 꿈꾸다

HISTORY

대 표: 진동규
소 리: 박혜빈 | 장: 박요셉 | 팽과리: 김영진 | 북: 구태경
태평소: 김동윤 | 트럼펫: 박경모
트럼본: 정재환 | 색소폰: 조민형 | 신디: 박병일
드 럼: 정모세 | 베이스: 이유빈

2022 전국풍물상설공연, 계룡, 청남대, 경주
2022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 '카라반'
2021 국립민속국악원 목요다락 '놀다', 국립민속국악원

「프로젝트 지원동기

전통문화는 그 나라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오랜 세월을 거쳐 일궈온 고유한 가치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해당 국가의 정서적 뿌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원형이 서서히 멀어지거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은 그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합니다. 본 단체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2차 프로젝트 때 관객들과 소통하여 안산 젊은 국악팀으로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노랫말을 선율과 소리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꿈을 소원수리에 적어 하늘로 보내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소원 성취 발원이라 청악

01



비나리의 새로운 해석

「프로젝트 소개

비나리는 사물악기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엮어 부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행위이다. 소원을 비는 행위를 나타내는 '비나이다'의 의미로 타악기뿐만 아니라 브라스밴드와 국악 실내악이 합쳐진 곡이다. 연주 중간에 관악기, 타악기의 즉흥연주 형식의 주고받는 음악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문화예술에 중점을 둔 공연임에 틀림없지만 소통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 공연이기도 하다. 기존의 우리의 가락과 서양음악의 협연을 통해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소통의 범위까지 나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시놉시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든 액살을 풀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내용(비나리)을 국악, 브라스, 사물놀이, 소리의 콜라보로 재구성, 재해석한 공연이다.

- #1 맑은 종소리(정주)로 INTRO를 알리며 구음이 시작된다.
- #2 남도 시나위를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 ZAM 형태의 연주를 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 #3 기존 비나리의 앞 볼 가사를 천천히 말하듯이 노래한다.
- #4 타악기 연주와 함께 빠른 템포로 모든 악기의 합주로 비나리 노래가 시작된다.
- #5 구음 사이마다 시나위가 연주된다.
- #6 앞 볼 가사가 끝나고 사물놀이의 격정적인 짧은 연주 후에 뒷볼(떼창)이 진행된다.
- #7 ZAM 형태의 돌림노래가 진행되고 악기마다 SOLO 형식의 연주가 진행된다.
- #8 연주가 진행될 때 무대 위 막이 내려오게 되고 소리꾼은 무대 막에 묶여있는 천을 풀어 객석으로 천을 길게 펼치게 되며,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 작성했던 소원종이를 천에 묶는다.
- #9 소리꾼은 천을 들고 무대 뒤 설치해둔 모형나무에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고 무대 막에 묶으면 음악이 전환되며 공연의 막바지로 치달게 된다.
- #10 휘모리장단에 맞추어 모든 악기의 연주가 서서히 고조되며 공연이 마무리된다.





HISTORY

아트컴퍼니 13월은 지역의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공연을 만드는 뮤지컬 전문 컴퍼니이다. 주요 키워드는 '지역 문화'와 '전통예술'이며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이슈 등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 문화 향유에 힘쓰고 있다. 제작하는 공연의 대부분은 전통예술이 가미되어 있으며, 소재부터 형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예술과 현대 공연양식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 장한솔

제작/연출: 장한솔 | 작가: 김송미 | 작곡가: 임지송

기획: 박현이, 최희수 | 조연출/무대감독: 김정우

조명: 한재진 | 음향: 원형빈 | 영상: 김인열

실연: 노현창, 김태환, 명찬호, 조재령, 국주호, 정수민, 이한솔, 이지윤

2022 연극 <성벽>

2022 전통공연 <오늘! 살어리랏다>

2021 연극 <사공/死空>

2021 뮤지컬 <청문당, 기억을 걷다>

2020 뮤지컬 <보통, 삶>



「프로젝트 지원동기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양한 외국 문화가 자리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공연,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외국의 문화는 한국 대중을 유혹하고 있고 대부분 그 장르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외국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나 우리의 문화를 잊은 채 외국의 것만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역사를, 정신을 잃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뮤지컬 <소리꾼>은 외세의 문화 침략 속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판소리를 하던 '최선달'의 여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공연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뮤지컬 <소리꾼>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판소리의 호시 '최선달'을 중심으로 조선의 가장 큰 문화예술 의식 중 하나였던 '방방의(창방의)'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범죄집단 '검계'와 범을 잡던 단체 '착호갑사'까지 전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 실제 역사의 인물들과 배경을 활용, 국가 차원의 행사 방방의를 중국식 제도로 복속 시키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의 싸움을 그려낸 것이 <소리꾼>입니다. 실제하는 역사와 그럴듯한 작가의 상상력이 만나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화 침략의 시대
우리의 것을 지키는
이야기를 만들다

소리꾼
13월

02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소리꾼의 투쟁기

「프로젝트 소개

<소리꾼>은 '방방'이라는 조선의 제도를 지키려는 자들과 중국식 문화를 들여오려는 자들의 대립을 그린 뮤지컬이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예술은 외래의 문화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뤘으나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의 문화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문화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발전했는지를 담고 있는 DNA다. 그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소리꾼>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 투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문화라는 힘의 중요성을 관객들과 함께 고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시놉시스」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연회인 방방의에 초대되어 한양에 온 최선달. 마지막 과거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방방의를 중국 제도로 바꿀 예정이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방도를 찾기 위해 자신을 초대한 나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때 마주친 장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장희진이 위험한 여인처럼 느껴지지만 하는데 결국 최선달은 장희진이 검계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희진, 검계 그리고 그들을 제재하려는 세력. 방방의를 둘러싼 싸움이 그저 소리꾼이었던 최선달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과연 선달은 방방의에서 자신의 소리를 선보일 수 있을까?





연극을 통해 폭력적 현실을 바라보다

HISTORY

극단 오아시스는 2013년 연극을 통한 사회적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던 지역 연극인들이 모여 창단하였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고전과 현대 희곡을 공연해 왔으며, 현시대 부조리한 삶에 대한 성찰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신작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나와 너'의 사회적 연대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 김민채

기획/작가: 김민채 | 연출: 오승욱 | 조명: 주정현

음향: 박소희 | 드라마투르그: 최민구

캐스트 : 우영희, 박철규, 유향희, 김양희, 손서후, 형한별, 박진성

- 2023 정기공연 연극 <감마선은 달무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보노마루 소극장
- 2022 2022 정기공연 연극 <블랙코메디> 안산문화재단 별무리극장
- 2022 창작극 <행복해 죽는 사람들> 안산문화재단 별무리극장
- 2021 창작극 <완벽한 가족> 안산문화재단 별무리극장
- 2020 <웃어라 무덤아> 대학로 알과핵
- 2017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반월> 공연
- 2015~2018, 2020 ASAC 공연 예술제 참여

「프로젝트 지원동기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 일상적인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이웃. 그 일상을 살아내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본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인해 잘못 부여된 폭력을 겪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연극 <버티고개 꽃게 도난 사건에 관한 보고서>는 관객들에게 진부하고 일상적인 현실을 낯설게 대면시킴으로써 관객들이 냉철한 시선으로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공감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 보통사람 '여자'가 겪는 웃지 못할 하루 동안의 코미디를 보면서 우리가 작은 폭력을 당연시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소홀히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대한 비극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은 남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인문학적 사유를 함께하는 순기능으로서의 연극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버티고개 꽃게 도난 사건에 관한 보고서

극단 오아시스

03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소개

연극 <버티고개 꽃게 도난사건에 관한 보고서>는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을 쫓아가다 중국에는 거대한 비극과 맞닥뜨리는 '미스터리 희비극'이다. 꽃게 분실이라는 작은 사건의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의 저속한 물질주의와 비인간적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고자 배우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회의 문명이 가속화 될수록 '인간성을 회복하자'라는 외침이 더욱 커지는 현실은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인간은 동물과 차원이 다른 지적, 정서적 능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명사회를 이룩하였다. 인간이 애초에 동물과 차별화 되었던 장점은 이성적 사고, 합리적 판단과 서로에 대한 배려, 가족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연민 등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적 특성이라 여겨지는 원초적 욕망, 폭력성, 승자독식의 서열제도를 굳이 쫓지 않고 인간적 특성을 추구한다면 인간 상실의 시대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출생과 관련한 신분 제도가 사라진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계급과 힘이다. 그런 계급과 힘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며 그 속에서 우리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폭력적이 되었다. 약한 개인이 맞서기에는 불가항력인 폭력적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해야 한다.



「시놉시스

토요일 낮. 가파른 고갯길 빌라촌 계단 근처에서 중년 여자가 꽃게 도둑을 찾겠다고 미친 듯이 소리친다. 딸은 그런 엄마가 부끄럽다. 두 사람은 경찰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이후 꽃게와 반찬 가방을 찾았다며 경찰이 찾아온다. 하지만 경찰은 엄마를 연행해간다.

하루 전, 마트 캐셔인 여자는 꽃게를 사러가야 하는데 교대할 동료는 오지 않고 손님과 계산 문제로 실랑이 중이다. 카드사 전산상의 문제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은 팀장은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자 재계약에 영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불안해진 여자는 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퇴근이 늦어진다.

포구에서 꽃게를 사오던 여자가 추돌사고를 일으킨다. 암살을 떠는 외제차녀의 옴포에 기가 죽는다. 보험 갱신이 안 된 상황임을 안 여자는 현금으로 외제차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대야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간다.

그날 밤, 지친 그녀를 기다리는 건 게임에 빠져 사는 폭력적인 동거남. 여자는 조용히 딸에게 줄 반찬을 만든다. 늘 그렇듯 위협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여자는 점점 불안해진다. 꽃게 박스 속 꽃게의 바스락대는 소리. 남자는 계속 깔깔대며 게임에 몰두한다. 채소를 다듬던 칼을 든 여자가 남자의 등 뒤로 걸어간다.





버티고개 꽃게 도난 사건에 관한 보고서



극단 오아시스



지역 콘텐츠와 일상에 대한 탐구 자세 돌보여

심사총평

심사위원 김일송, 신동호, 송현민

서류 심의와 실연 쇼케이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1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지원된 작품들의 성향을 두루 살피고, 현실 가능성, 예산, 준비 기간,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 능력 등을 검토하여 심의했다.

지원자들은 전통예술, 뮤지컬, 연극 등 여러 장르였는데, 현대인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차용하거나,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작품에서 만나게 하는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작품들이었다. 지원 단체의 대표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획과 무대 위에서의 기량들을 발휘했다.

심사에 임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공연예술은 각 장르의 기준과 형식을 따르면서도, 창작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흡수하고 발현하는 중이다. 따라서 지원자들이 품고 있는 창작 경향을 살펴보고, 굵은 원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탐색해나갔다. 그

러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심의 동안 작용했는데, 이는 공연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현실성), 예산과 작품 규모·성격 비교, 창작력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류 심의를 통해 작품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꼼꼼한 준비 속에서 작성된 서류들이었으며, 작품의 윤곽을 잘 잡은 설계도와도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 만들기'는 쉬우나 '몸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처럼, 이상적인 무대 구현은 좋으나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들은 제외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 진행될 쇼케이스 심의나 재단과의 연계 및 소통 가능성을 잘 지니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쇼케이스 심사의 경우는 지원단체들은 서류 심의와 달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쇼케이스 공연을 위해 '발체'한 부분들로 엮되,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작품 전체'를 가능하고 상상하게 해야 한다. 이때 작품의 성향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원 단체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심사총평

그리고 쇼케이스는 실연에 못지 않은 연습과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하지만 실행자들의 연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역할에 걸맞은 실행자를 아직 구하지 못하여 대체 예술가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과 상기한 여러 기준을 토대로 심사에 임했다.

심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은 점은 지역성과의 연계였다. 물론 지역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전면 흡수하여 창작하거나, 중요 소재로 삼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적어도 현실과 장소성의 반영물이라고 할 때, 특히 지역 거점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지역적 소재에 대한 탐구나 아니면 지역 관객들이 예술을 통해 삶과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환기적 역할을 하면 좋다. 이러한 배려와 신경이 작품에 녹아들 때, 작품만의 개성은 물론 본 사업도 빛을 발한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지원자들은 작품에 녹여넣을 수 있는 지역 콘텐츠나 일상에 대한 탐구 자세가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연계와 호흡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에 공연 제작비와 인건비 등의 단가가 상승하면서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본 사업과 지원자들의 예술성이 돋보이고 상생할 수 있는 작품을 남겨주길 바랄 뿐이다.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부문_2단계 신작초연

2단계 신작초연 사업개요

- 공연명: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 공연단체: 극단 송곳
- 공연일시: 2023. 09. 22.(금) 20:00
2023. 09. 23.(토) 15:00, 19:00
2023. 09. 24.(일) 16:00
-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추진목적
 - 2022년도 1단계 쇼케이스 심의결과 선정된 전문예술단체의 신작 실현
 - 단계별 지원에 따른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창작활동 기반 조성
- 러닝타임: 90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관람가

현장평가

구분	평가위원	소속
전문	김일송	공연평론가 및 공연칼럼리스트 / 이안재 대표
심사위원	신동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미래전략실장시각, 다원 비평가

* 모니터링 내용: 공연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서, 평론 기술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HISTORY

극단 송곳은 제 몸을 부수면서도 앞을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세상과 사람들의 막힌 가슴을 뚫고 용감하고 정직하게 연극하는 젊은 창작집단이다.

작, 연출: 심재욱
 드라마터그: 이왕혁 | 기획: 배유진 | 조연출: 신지연
 진행: 박승우 | 무대: 유다미
 조명: 강상민 | 음향: 조연하 | 의상: 신은혜 | 사진: 이백승
 그래픽: 전효빈
 실연: 김범진, 이해원, 최경식, 임이지, 신동준, 이호준

- 2021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연극 <도비왈라>, 안산
- 2021 산울림고전극장 연극 <해밍웨이>, 소극장 산울림
- 2020 산울림고전극장 연극 <시라노 콤플렉스>, 소극장 산울림
- 2019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연극 <입양인>, 나온씨어터
- 2019 권리장전2019원조적폐 연극 <디쓰이즈햄릿>, 연우소극장

「프로젝트 지원동기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의 뼈 있는 이 말은 극단 송곳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베르 카뮈 원작의 '페스트'를 통해 4월 16일을 기억하고 촛불의 연대를, '아이고, 아미고'를 통해 영웅이라 불리지만 소외된 소방관의 이면을, '입양인'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부조리를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우리만의 연극 언어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극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방식의 드라마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작업하는 작가의 대본을 성실하게 분석, 공부해서 충실하게 무대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나로부터 새로운 이야기와 스타일로 극단 송곳의 2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극단 송곳의 토양이었던 안산에서 본 사업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극단 송곳



1999년, 너희가 올드 힙합을 아느냐

「프로젝트 소개

1999년은 다문화가정이 낯설었던 시대이다. 동시에,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오렌지 족, X-세대로 시작된 힙합 문화가 유행하던 젊음이 있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에 뛰어들기도, 뒤쳐지기도 두려운 젊은 날, 순수함과 이상은 때론 현실에 부딪혀 묻기도 한다. 하지만 퇴보라고 생각하지 말자.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니까. 2021년 불혹을 앞둔 우리, 철없고 거침없던 그 시절 작은 순간들을 너희는 기억하는지. 그리고 힙합 정신이 깃든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때의 아픔은 힙합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는 점을 추억하자.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작품)는 1999년 한국 힙합 1세대를 배경으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이야기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 편견에 저항하는 방식은 힙합을 통한 '랩핑'이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펜으로 남기고 배우들의 말로 벌어지던 '운문(시)'와 같다. 피부색의 차이로 친구들과 시작한 힙합이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방식은 미국 할렘가 흑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힙합 음악처럼 보일 이 작품은 단순한 음악극이 아니다. 그들이 왜 '랩핑'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 젊음을 어떻게 불태우고 극복하는지, 낯선 피부색이지만 낯선 음악으로 키운 그들의 꿈과 야망을 증언하는 성장 연극이 될 것이다





「시놉시스

주인공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이 자신을 대충 만들었다고 믿는다.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은 이혼했다. 하지만 우연히 가입한 흑인음악 동아리. 처음이지만 '잘' 해야만 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렇게 '다름'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를 손에 들고, '랩(Rap)'이라는 무기를 통해 어두운 삶속에서 도약하려는 꿈을 꾸다. 그룹을 결성하고, 오디션을 보고, 무대에 서고, 아이돌 데뷔 직전의 순간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염된 세상의 편견이 그의 비상을 가로 막는다.



「사업성과

1. 참여원들의 역량 향상

- 창작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리서치 활동과 취재필드워크 등을 통해 창작자들이 보다 역량 있는 종합 예술인으로 성장한다.

2. 새로운 무대 언어의 개발

- 재현적이고 일차원적인 무대언어가 아닌 다양한 자원들이 융합된 현대적인 형태의 새로운 무대 표현을 탐구 및 개발하여, 동시대 연극으로서의 미학적인 성취를 기대한다.

3. 극단 내 새로운 이야기꾼 개발

- 기존 희곡 창작을 전담하던 작가를 벗어난 새로운 작/연출가를 발굴한다.
- 창작진을 넘어 실연자들과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한다.

4. 청소년 극의 가능성 타진

- 동시대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새롭게 청소년 계층 관객 개발을 기대한다.
- 음악을 활용한 콘서트 혹은 뮤지컬 장르로의 변주도 기대할 수 있다.

5. 공연 바이블을 통한 공연 제작 시스템 구축 및 공유

- 리서치, 취재필드워크, 제작회의, 내부 합평, 관객의 피드백 등 제작 전반의 내용이 담긴 공연 바이블 및 아카이빙 북을 제작해 체계적이고 건강한 제작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공유해 다음 사업의 참여자들이 보다 발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새로운 관객층의 개발

-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접근성 탓에 평소 공연 관극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안산 시민들을 새로운 관객층으로 개발하여, 경기 안산지역 문화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품 보다 담대한 구성은 필요

「공연 평론 01

심사위원 김일송

극단 송곳의 음악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안산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1단계 쇼케이스를 통과하여 이번에 2단계 본공연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극단 송곳은 2016년에 창단한 단체로, 안산에 거점을 두고 안산과 서울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극 창작집단이다. 그간 입양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이방인>(2017년) <입양인>(2019), 연쇄 방화를 추적하는 소방관들의 일기를 담은 <I Go, Amigo>(2018년),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경으로 하는 <러브앤피스>(2018년), 세탁기 도입을 두고 벌어지는 계층 간 갈등을 그린 <도비알라>(2021년) 등을 작품을 선보여왔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극단 송곳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무대화하였는데, 단체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극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방식의 드라마로 연극을 만들었다.”

이번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제목에 드러나듯 ‘힙합’ 그중에서도 ‘랩’을 소재로 한다. 배경은 1999년 안산.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다. 작가(심재욱)는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찬호)를 핵심 인물로 작품의 뼈대를 세웠다. 이야기는 찬호가 전학 오는 날로 시작해, 찬호와 일군의 아이들이 랩 동아리를 만들고, 시 낭독회에서 랩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등이 보인다. 작품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힙합 음악처럼 보일 이 작품은 단순한 음악극이 아니다. 그들이 왜 ‘랩핑’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 젊음을 어떻게 불태우고 극복하는지, 낯선 피부색이지만 낯선 음악으로 키운 그들의 꿈과 야망을 증언하는 ‘성장 연극’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단순한 음악극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마도 대학로에 범람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음악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극단 송곳이 이전에 보였던 사회적 문제를 음악적 형식에 담은 작품으로, 여기에서는 인종 혹은 부모 세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 세대에 대한 차별, 혹은 편견을 무대화하였다.

기획 의도에서 뽑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성장 연극’이다. 그러나 본 공연에 일반적인 성장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보통의 성장 연극은 기성세대와의 불화 혹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저항에서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이기 일쑤다. 그러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에서 갈등의 온도는 높지 않다. 기성세대로 등장하는 담임선생은 비교적 쉽게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주인공 찬호를 둘러싼 인물들도, 찬호에게 우호적인 인물들 뿐이다. 갈등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성장의 폭이 크지 않은 인상을 준다.

제작은 비교적 성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짐작한다. 공연은 기존에 제출했던 시놉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본공연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없던 인물을 추가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것이 유효했을까? 앞서 언급했듯,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찬호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여 편견이 드러나는 장면은 있으나, 그것이 ‘폭력’으로 느껴질 정도의 편견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 찬호에게 연민을 느낄 새가 없다.

무엇보다 작가는 본 공연을 ‘음악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다른 인물들은 ‘찬호가 대단한 래퍼일 것’이라며 찬호의 캐릭터를 빌드업한다. 때문에 관객들은 찬호의 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장면에서 찬호의 랩을 하지 않으며, 작연출가는 관객들의 기대를 배신하는데, 그것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몇몇 의문에도 불구하고, 음악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작·연출가의 능력이 부족해 위와 같은 약점이 노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작·연출가가 너무 많은 상황과 관계와 인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깎고 깎은 결과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작·연출가가 조금 더 대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재구성한다면, 나은 결과물을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몇 마디 첨언하고 싶다.

무엇보다 음악극으로서 인물들의, 특히 주인공의 ‘랩’ 장면을 강화한다면 어떨까? 이에 대한 설명은 하략해도 될 듯싶다. 그리고 프로타고니스트에 맞서는 안타고니스트를 부각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곧 담임선생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랩’을 하급한 장르로 규정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이나 공고한 사회적 시스템 등, 인물이 아닌 인식이나 구조로 안타고니스트를 부각하여도,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듯싶다. 그럴 때 이 작품이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작품이 되리라 기대한다.

전형성을 탈피하고 생명력 있는 청소년극으로 나아가길

「공연 평론 02

심사위원 신동호

극단 송곳은 2016년 안산의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그동안 <입양인 그리고 이방인>, <I Go, Amigo>, <도비왈라>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방식의 드라마로 구성, 관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번에는 기존의 극단의 창작방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새로운 이야기와 스타일의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을 작년 쇼케이스 공연을 거쳐 무대화하였다.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1999년 2월 발매된 드림큰 타이거의 정규 1집 앨범 <Year Of The Tiger>에 있는 곡에서 동명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곡은 당시 '부처맨 집'(put your hands up) 트렌드 붐을 일으킨 곡이기도 하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그동안 연극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힙합'을 소재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학교폭력, 인종차별 등 1999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이다.

'힙합'은 랩, 디제잉, 그래피티, 브레이킹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로써 특히 이번 작품의 소재가 되는 힙합 중 랩은 과거 비주류 하위문화였지만 현재에는 전 세계의 젊은 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장르(연극, 뮤지컬 등)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스토리에 힙합이라는 음악을 차용하기가 어렵고, 음악에 신경을 쓰다보면 이야기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브로드웨이에서도 흥행 면에서 뮤지컬 <해밀턴>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뮤지컬 <백범> 등 주로 뮤지컬 장르에서 '힙합'을 차용하여 창작극을 제작한 바 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객에게는 낯설고 실험적인 장르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제작진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음악이 우선되기 보다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방향성을 잡았다. 극 중 류찬호와 소시원이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 시 낭독회에서 랩 공연을 올린다는 설정 등 전체적인 스토리는 무난했으나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한 것처럼 인종차별적인 민감한 내용으로 공연관람 중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다만 주인공의 성장기를 다룬 '소년만화'의 전형적인 플롯과 학교폭력, 인종차별 등의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함께 엮다 보니 관객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버린 듯하다.

특히 서브 캐릭터인 여주인공의 동생(최이삭)을 추가하면서 인종차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르지 않다 등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캐릭터로 인해 전체적인 스토리의 개연성이 다소 떨어졌다. 차라리 짧게라도 각각의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와 이를 기반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극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싶다.

배우들의 연기는 큰 편차 없이 우수했으며(극의 특성상 일부 배우는 대사와 더불어 랩을 때때로 해야만 했다.), 무대, 조명, 의상 등을 무채색으로 통일하여 '블랙페이스'의 문제를 최소화한 점도 인상 깊었다.

홍보 부분에서는 당초 단체가 제시했던 홍보 전략 및 홍보매체 운영계획이 미진했다. 극단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간헐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홍보물 및 리허설 사진 공개, 출연진 사전 인터뷰 등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의 한계로 생각되지만 유튜브, 틱톡 등을 활용한 홍보, MZ세대를 겨냥한 B급 홍보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단 송곳만의 홍보 플랫폼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아직까지는 보완할 점이 많은 작품이다. 향후 극의 전개 과정에서 관객이 배우와 호흡할 수 있는 장면을 설정하여 관객의 공감대를 높이고, 극의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캐릭터 구축 등을 한다면 생명력 있는 청소년 극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 송곳의 제2막의 시작을 응원한다.

2023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자료집

주최 · 주관	안산문화재단
발행처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발행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
총괄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책임	시민축제부장 신항섭
기획 · 진행	시민축제부 김민정
운영지원	시민축제부 강동하 김지안 유다인 당현진 유지형 오혜미 박소윤 국예림 부혜영 손수강
편집	강은주 이정화 신혜경 김일송 신동호 송현민
촬영	엠카이브
디자인 및 인쇄	한들기획
발행일	2023.12

본 결과자료집은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자료집으로 안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안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T 031-481-0522 F 031-481-0520

www.ansanart.com